

'이영준 극장골'...파리행 첫 관문 뚫었다



지난 17일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B조 1차전 대한민국과 UAE의 경기에서 승리한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황선홍호,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UAE전 1대0

'한·중·일' 죽음의 조... '교체카드'로 첫 난관 돌파 황선홍 감독 "선수들의 각오 의지로 승리 이뤄내"

황선홍 감독이 적극적인 교체 카드로 2024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의 첫판부터 찾아온 위기를 돌파해냈다. 황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17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UAE)에 1-0으로 신승했다.

2024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죽음의 조'에 속해있다. UAE와 더불어 중국, 일본이 함께 B조로 묶였다. 중동과 함께 아시아 축구의 양대 축을 이루는 극동 3개국도

두한 조에 속한 것이다. 어느 대회든 조별리그 첫 경기 승리는 매우 중요하다지만,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대업 도전에 한중전, 한일전의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황선홍호로서는 UAE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필요가 있었다.

황선홍호가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했으나 경기 흐름은 묘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전반 18분 황재원(대구의)의 왼발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때렸고, 이어진 상황에서 나온 안재준(부천)의 득점은 비디오판독(VAR) 결과 앞선 상황에서 오프사이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취소됐다.

황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카드를 두 장이나 쓰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전반전 다소 부진한 홍시후(인천) 대신 돌파에 능한 강성진(서울)을 오른쪽 공격수로 투입했다. 또 안재준(부천) 대신 190cm의 장신 스트라이커 이영준을 최전방에 세워 득점권을 강화했다. 후반 32분에는 조현택(김천)을 빼고 크로스가 좋은 이태석(서울)을 그라운드로 내보냈다.

황 감독의 교체 카드는 대성공이었다. 후반 49분 이태석이 오른쪽에서 열린 코너킥을 이영준이 타점 높은 헤더로 마무리해 '극장 골'을 넣었다. 강성진은 과감한 돌파로 오른쪽에 균열을 냈다. 비록 앞선 상황에서의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으나 후반 42분 헤더로 상대 골망을 흔들기도 했다. 이날 황선홍호가 전반적인 경기 내

용 면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공 점유율에서 73%대 27%로, 슈팅수에서 16대 3으로 크게 앞섰는데도 1점밖에 올리지 못했다. 특히 크로스를 무려 43개(UAE 6개)나 올렸는데도 무위에 그쳤다. 그러나 첫 경기의 부담과 경기중 찾아온 여러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를 따낸 건 그 자체로 중요한 성과다. AFC에 따르면 황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엔 첫 경기는 변수가 많아 어렵다"며 "어렵고 힘든 경기였는데 선수들의 각오, 승리하려는 의지가 결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 들어 공격에서 계속 변화를 줬다. 공격 지역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내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다"면서도 "선수들은 내 계획대로 경기에 임했다. 그 점을 칭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4년 춘계 한국 여자 축구 연맹전 초등부 준우승을 차지한 하남중앙초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하남중앙초 여자축구부 2024춘계연맹전 준우승

하남중앙초 여자축구부가 2024년 춘계 한국 여자 축구 연맹전 초등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하남중앙초는 17일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경남 남강초에 0-1로 패했다. 하남중앙초는 예선에서 충남 남산초(1대0), 광양중앙초(1대0), 안산 유소년 FC(7대0)를 연파하며 3전 전승으

로 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강릉FC를 상대로 4대0 승리를 거두며 무실점 전승으로 결승에 오른 하남중앙초는 우승 문턱에서 북병 남강초에 발목이 잡히며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하남중앙초의 준우승은 어려운 운영 여건과 얇은 선수층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백희중기자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이 17일 열린 밀워키와의 방문경기에서 1회 스리런을 터뜨린 후 자축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USA TODAY Sports=연합뉴스

김하성, 시즌 3호 대포 '왕'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시즌 3호이자, 빅리그 개인 통산 30호 홈런을 쳤다. 김하성은 17일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방문 경기에 5번 타자 자격으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 3타점 1득점했다. 1회 첫 타석에서 짜릿한 손맛을 봤다. 1-0으로 앞선 1회초 1사 2,3루, 김하성은 밀워키 왼손 선발 웨이드 마일리의 2구째 시속 141km 컷 패스트볼을 공

략해 왼쪽 외야 파울 폴을 때리는 3점포를 터뜨렸다. 타구는 시속 163km로 115.5m를 날아갔다. MLB닷컴 현지 중계진은 "타구가 로켓처럼 날아갔다"고 묘사했다. 김하성은 지난 13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 이후 나흘 만에 홈런을 추가했다. 이날 샌디에이고는 밀워키를 6-3으로 꺾고, 3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부산오픈 준우승 아쉬움, 광주오픈서 우승으로

홍성찬, '4전 5기' 빛고를 무대 첫승 신고

세계랭킹 100위권 진입 자신감...승승장구 예고 최상의 컨디션 유지 매 경기, 매 포인트에만 집중

2024 ATP(프로테니스협회) 비트로 부산오픈 단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랭킹 100위권 진입에 성공한 홍성찬(세종시청)이 ATP 광주오픈 챌린저 2024 우승을 노린다. 홍성찬은 지난 16일 광주 진월국제 테니스장 센터 코트에서 열린 광주오픈 32강에서 일라마르첸코(Ilya Marichenko·우크라이나·239위)를 2-0(6-3, 6-2)으로 완파하고 16강에 올랐다. 홍성찬은 32강 경기를 마친 직후 공식 인터뷰에서 "부산오픈에서 결승까지 힘들게 경기를 하고 광주로 넘어와 바로 경기에 임했다"며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여서 쉽지 않은 상대였지만 분위기를 잘 이어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주 부산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ATP 단식 랭킹을 172위까지 끌어올렸다. 지난 2월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100위권 진입에 성공했고, 테니스 선수로 인생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있는 상태다. 홍성찬은 "한국에서 제일 큰 대회인 부산오픈을 치르면서 테니스 선수로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다"며 "준우승이라는 성적까지 거두면서 큰

자신감을 얻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자신했다. 부산오픈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홍성찬은 이번 광주오픈 우승에 도전한다. 성적과 함께 수비적인 선수라는 인식을 공격적인 선수로 바꿔보고 싶다는 의욕도 나타냈다. 홍성찬이 32강에서 맞붙었던 상대인 마르첸코는 2016년 ATP 단식 랭킹 49위까지 올랐던 강자다. 그랜드슬램(4대 메이저 대회)인 2016년 US오픈에서는 16강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그런 상대에 서브에이스 3-0, 더블폴트 2-5 등 압도적 경기력으로 2016-2017년, 2019년, 2022년의 4전 5기 끝에 광주오픈 첫 승을 챙겼다. 그는 "모든 시합을 확실하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도 "어릴 때부터 광주오픈에서 한 번도 이겨본 기억이 없었는데 이번에 첫 승을 하게 됐다. 코치와 아내도 정말 좋아했고 저 역시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우승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성찬은 단식에만 출전하면서 단식 16강 일부 경기와 복식 16강이 처리



홍성찬이 지난 16일 열린 ATP 광주오픈 챌린저 2024 32강전에서 일라 마르첸코(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포인트를 따낸 후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지는 17일에는 휴식을 취한다. 간단한 훈련으로 컨디션을 유지한 뒤 18일에 출전을 준비할 예정이다. 그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피로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며 "힘들

다고 생각하지 않고 힘들어할 때도 아니다. 이제 16강에 올랐을 뿐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없이 매 경기 매 포인트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희중기자

"파리 올림픽에서 영광을"...팀코리아 단복 공개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둔 17일 오전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국가대표 격려 행사에서 김수지(다비, 왼쪽부터), 임시현(양궁), 오상욱(펜싱), 이준환(유도)이 시상복과 일상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 파리 올림픽 시상대에서 태극 전사들이 입고 나설 단복이 공개됐다. 대한민국 선수단 공식 파트너인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에서 시상용 단복과 일상복, 선수단 장비를 공개했다.

영원아웃도어는 "이번 단복은 건곤감리의 '갑개'와 태극 문양의 음양(파란색·빨간색), 팀 코리아의 캘리그래피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적용했고,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감, 발수 및 경량 기능을 강화했다. 16개 품목에는 리사이클링 소재가 적용됐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